

## 김광현, KBO로 U턴 ... SSG와 '역대 최고' 계약

한때 LA다저스로의 이적이 나돌던 김광현(34)이 한국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역대 프로야구 최고액수에 계약하고 한국프로야구(KBO) 리그로 돌아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SG 구단은 이날 김광현과 연봉 131억원, 옵션 20억원 등 4년 총액 151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KBO 사상 최대 계약 규모다.

2007년 1차 지명으로 SK 와이번스(현 SSG)에 입단한 김광현은 미국 진출 전인 2019시즌까지 136승77패 2홀드, 1456 탈삼진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2019 시즌 종료 뒤 그는 국외리그 진출이 가능한 신분이 아니었으나 김광현의 오랜 꿈과 팬들의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구단은 그의 미국 진출을 허락한 바 있다. 당시 SK는 김광현을 임의 탈퇴신분으로 묶었다. KBO 규약상 임의 탈퇴신분이면 선수와 구단이 한 종전 계약은 해지된다. 따라서 이번 김광현과 SSG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다.

김광현은 지난 두 시즌 동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활약했었다.



▲ 김광현은 한국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역대 프로야구 최고액수에 계약했다. 사진=twitter(MyKBO)

2020~2021시즌 성적은 10승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 불펜과 선발을 오가면서 꽤 좋은 성적을 냈다. 세인트루이스와 2년 계약이 종료된 뒤 김광현은 자유계약

선수가 됐다. 미국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김광현의 행선지로 LA다저스가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광현의은 MLB 직장폐쇄가 길어지면서 소속팀을 못 찾고 있었다. 이에 SSG 구단은 적극적으로 그의 영입을 타진했고 복귀를 성사시켰다.

SSG는 MLB에서 뛴 김광현, 주신수(40)와 KBO리그 최고 홈런 타자 최정(35)이 힘을 합쳐 '어메이징 랜더스'(Amazing Landers)라는 구단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올 시즌 야구 흥행 바람이 구도 인천에 착륙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뒀다.

김광현은 "그동안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선진 야구 경험도 할 수 있었고 팬서비스의 중요성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팬들의 열망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KBO 리그에 복귀하면 팬들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면서 "구단에서 나의 가치를 KBO 리그 최고 대우로 인정해 주셔서 친정팀 복귀를 고민하지 빠르게 결정했다. SSG가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KBO 복귀 소감을 전했다.

## 고진영, 최장기 세계 1위 기록 경신 유력

고진영(27)이 역대 최장기 세계 1위라는 기록에 도전한다.

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고진영은 6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 코스(파72)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20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 대회에서 고진영은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와 30라운드 연속 언더파라는 두 가지 신기록을 세우며 이 부문 기록을 가지고 있던 스웨덴의 골프 여제 안나카 소렌스탐(52)을 넘어섰다.

고진영은 2019년 4월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으로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그 뒤 7월 2일자 발표까지 16주, 이어 박성현에게 잠시 자리를 내준 뒤 7월 29일 발표에서 1위로 복귀해 2021년 6월 28일 발표까지 100주, 이후 넬리 코다(미국)와 1위 싸움을 하며 10월 26일자 발표 후 2주, 2022년 2월 1일자 발표에서 1위를 되찾아 현재까지 6주 동안 1위를 지켜 통산 120주 여왕의 자



▲ 고진영은 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20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사진=seattletimes.com

리에 올랐다.

고진영은 앞으로 39주 이상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면 역대 최장기 세계랭킹 1위에 선수가 된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지킨 선수는 158주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다. 평야니(대만)가 109주로 2위

였으나 고진영이 뛰어넘었다. 다음은 박인비(34)의 106주다.

올해 안으로 오초아의 기록을 깰 가능성은 충분하다. 고진영은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2위 코다와 격차를 더 벌리게 됐다.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는 격차가 커 당분간 역전이 쉽지 않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고진영은 지난해부터 최근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했다. 6승 중 4승은 미국, 그리고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1승씩 올렸다. 코스 조건이나 날씨 등의 환경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기량을 꾸준하게 발휘한다는 건 고진영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자신의 경기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추가 우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렌스탐의 기록을 깬 고진영이 오초아의 최장기 세계랭킹 1위 기록마저 뛰어넘는다면 LPGA 투어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